



김명수씨

창작과비평사/B6변형/106면/5000원

김명수 시인(55)이 《아기는 성이 없고》(창작과비평사)를 펴냈다. 이번 시집은 지난 1995년 상재한 《바다의 눈》 이후 5년만에 내는 시집이다. 1977년 《서울신문》 신춘문예를 통해 등단한 후, 23년 동안 여섯권의 시집을 펴냈으니 4년마다 한권씩 시집을 낸 셈이다. 서두르지 않고 적당한 보폭으로 걸어가는 그의 '시보'(詩步)를 가늠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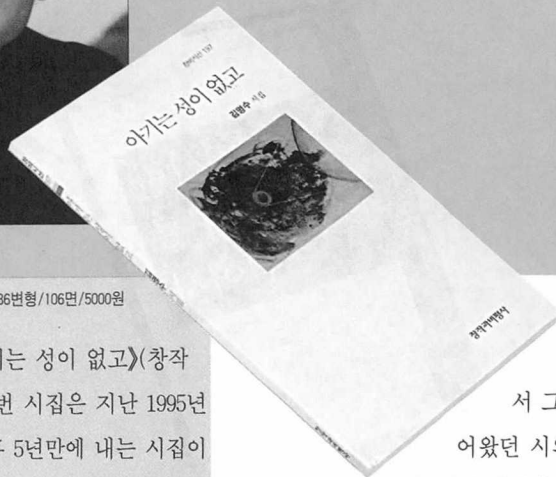
‘순수의 시대’로 돌아가려는 시인의 마음

그는 경기도 안산에 산다. 성호 이의 선생의 묘소와 그다지 멀지 않은 곳이다. 주변에는 울창한 숲이 펼쳐져 있고 그 숲에서 흘러나오는 매미 소리는 끊어질 듯하면서도 끊어지지 않고 이어진다. 한여름의 사생화로 전혀 손색이 없는 풍경이다.

“시집과 시집 사이 시간의 간극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요. 시에 얼마만큼 충실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5년만에 펴내는 시집이지만 시를 소홀히 한 적은 없었습니다. 언제나 시를 옆에 두고 살았지요.”

시집을 여는 첫 시 〈물결〉을 읽으면 태어난 그날 그 시각의 지극히 순수했던 지점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시인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저기 저 산등성이에 보랏빛 들국화가 / 무리져 피어 있다 / 나는 / 내가 태어나던 그날 그 시각의 / 햇살을 떠올린다”라고 그는 적었다. 세월이 흘러 어느덧 그는 선 중반에 접어들었다. 그는 오랫동안 시인의 길을 걸어왔고, 이제야 걸음을 멈추고 한숨 돌리고 싶어한다. 시인은 한 동



삶의 황폐 끌어안은 천진난만한 시심

《아기는 성이 없고》 펴낸 김명수씨

“지난 시대는 정치적 발언이 필요한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좀더 본질적인 물음이 요구되지요. 혼탁한 현대문명 속에서 인간적인 가치가 과연 무엇인가를 깨닫는 일. 그것은 자연을 살펴보고 자연에서 일어나는 여러 생명현상을 통해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안 멈춰 서서 그가 숨차게 넘어왔던 시의 언덕을, 혹은 삶의 언덕을 돌아본다. 그곳에는 보랏빛 들국화가 무리져 피어 있다.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언덕에 흐드러져 있는 들국화와 그 들국화를 비추는 햇살을 바라보다 문득 내가 태어나던 그날의 햇살과 지금 사이에는 얼마만큼이나 오랜 시간의 간격이 놓여 있는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간격을 넘어 그 시간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번 시집에서 두드러져 보이는 것은 자연이다. 이전에 그가 보여줬던 번두리 삶에 대한 세세한 묘사와는 달리, 이번 시집 전면에는 새·나무·강아지·바다·돌멩이·민들레·흰구름 같은 자연의 이미지들이 ‘진열’돼 있다. ‘시인의 말’에서 그는 이렇게 적었다. “돌아켜보니 이 시집의 시들은 나보다는 오히려 깃메꽃, 소금풀, 아이게들, 소루쟁이, 은빛 산맥 등이 쓴 것 같다.”

불모의 삶 살아가는 현대인의 초상

“지난 시대는 정치적 발언이 필요한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좀더 본질적인 물음이 요구되지요. 혼탁한 현대문명 속에서 인간적인 가치가 과연 무엇인가를 깨닫는 일. 그것은 자연을 살펴보고 자연에서 일어나는 여러 생명현상을 통해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자연을 바라보는 일은 깨달음으

로 가기 위함이 아니다. 얼마나 많은 시인들이 선불리 깨달음의 길로 들어섰던가. 그는 ‘이글이글 불타는 폭양아래’ ‘뿔뿔째 꼼짝도 하지 않고 웅크리고 앉아 뜨거운 자갈을 알인 듯 품고 있는 새’를 보며 불모의 삶을 살아가는 현대인의 초상을 떠올린다. 하지만 ‘늙은 농부 부부 연작’이라고 부를 수 있는 〈들녘〉 〈탄생〉 〈아기는 성이 없고〉와 같은 시편을 통해서도 피폐한 현실과 그것을 감싸안은 시인의 따뜻한 마음을 읽어낼 수 있다.

“생식능력이 없는 농부들이 아기를 만들어냅니다. 노동에 지친 농부 부부가 잠이 들면 꿈속에서 아기가 태어나는 거죠. 하지만 늙은 농부에게 그 아기에겐 물려줄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아기는 성도 없고 잠을 잘 요람도 없습니다. 결국 그 아기는 우리 모두가 키워야 하는 아기입니다. 곧 우리의 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꽃과 불〉은 시인 자신을 그린 작품이다. “나비는 꽃으로 날아들고 / 나방은 불빛 찾아 날아드네 / 나비도 나방도 아닌 자 있어 / 향기로운 꽃에서 숨결 모으고 / 제 몸 태울 불 속에도 뛰어들었네.” 그는 시인이 ‘나비도 나방도 아닌 자’라고 정의한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해 나비면서 나방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기에 시의 향기를 모아 현실이라는 불 속으로 뛰어드는 자가 시인인 것이다. “아직도 시에 대해서는 캄캄하기만 합니다.” 그가 던진 말이다. — 최갑수 기자